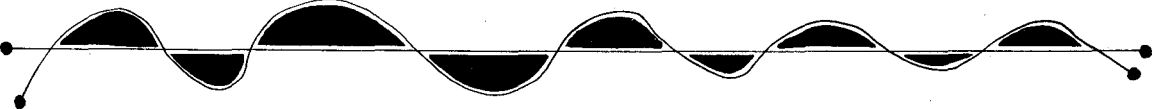


명예나 정치적인 야욕, 체면때문에 수년을 걸쳐 우리 낙농가의 숙원과제인 낙농진흥법, 부가가치영세율 적용, 어느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었다. 다시는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 낙농가의 소중한 한 표를 이용하려드는 일들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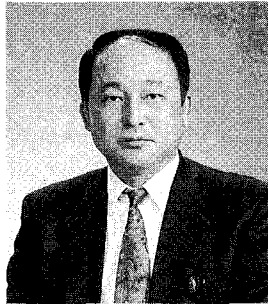
끝으로 국민건강 식품인 우유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홍보사업을 낙농가가 펼쳐나가야 하며 목장경영을 소

비자를 생각하면서 사양관리를 하고 국제 경쟁력에 대응키 위해서는 경영능력이 향상시키기 위하여 두당 산유량 증가를 위한 수정란이식사업, 고능력우 개량 등으로 두당 산유량을 높여 생산비를 줄여가는 방법을 제안한다.

'96년 한 해에는 낙농육우인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 하길 기원한다.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자



이 종 준

본회 부회장, 경북도지회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병자년 새해에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사료값 인상과 원자재, 기타 여러가지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원유가 인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도달되어 협회는 원유가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낙농인이 꾀기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감수하며 투쟁한 끝에 원유가 5.2% 인상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흡족한 수준은 못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의지를 모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가

능하였습니다.

작은 기쁨도 채 가지지 전에 모 방송국의 우유에 대한 편파 보도로 인하여 우유파동이 발생되었습니다. 작금의 일들은 우리 낙농가의 책임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 여파가 크게 되었습니다.

우리 낙농인이 그렇게 갈망하던 낙농진흥법이 5년이란 세월을 두고 개정 못한 것이 너무나 통탄스럽습니다.

회원 여러분!

낙농진흥법이란 우유의 과부족을 떠나서 장기적인 낙농발전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를들어, 유업체들이 우유가 부족할 때 낙농가 확보를 위해서 원유검사를 소홀히 하였던 일들이 근원적으로 농가를 이롭게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과 같이 개방화시대, 첨단화 시대로 가는 마당에 정당하지 못한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원유검사성적이 믿을 수 없다고 또는 작은 이익에 연연하여 이 유업체 저 유업체로 옮겨가는 것이 낙농가의 정당한 권리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루살이 낙농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검사와 규칙이 지켜졌다면 낙농산업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유가 남아서 집유업체가 기피하고 유질개선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개탄할 사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의 이익과 정당하지 않은 권리가 마치 우리축산농가의 권리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의 자세로 낙농진흥법 개정을 반대하고 지역적인 의견 대립으로 낙농진흥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유선을 옮겨서 다닐 수 있습니까?

모자랄 때 조금의 자유로움 보다는 남을 때 안전한 판매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낙농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금년 4월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선출할 지역의 국회의원은 당리당락에 치우치지 않고 정의롭게 앞날을

전국의 낙농육우인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주권행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한 일이고 법적 제도적으로 객관적인 정당성을 판단할 줄 모르는 국회의원은 절대 선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낙농업계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의 권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불줄이는 참된 일꾼을 뽑으셔야 할 것입니다.

작년도 낙농진흥법 관계로 농산위 의원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설득력이 있게끔 이야기 해 보았지만 우리 축산인이나 국민의 생업에는 아랑곳 없고 당방침이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기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역역히 보지 않았습니까?

전국의 낙농육우인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주권행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한 일이고 법적 제도적으로 객관적인 정당성을 판단할 줄 모르는 국회의원은 절대 선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낙농업계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의 권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올바른 나의 한표가 병든 농촌 살린다